

발포스티렌협회, 황규억 회장 선임

2월23일 정기총회 사업계획 확정 ...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홍보 강화

사단법인 한국발포스티렌재활용협회가 2월23일 홀리데이인서울호텔에서 정기총회를 갖고 신호유화 황규억 사장을 협회장으로 선임하는 한편, 2003년 협회 활동결과 보고와 함께 2004년 사업계획안을 확정·발표한다.



황규억 회장

협회 회장에 선임된 황규억 회장은 서울대 사범대 화학교육과를 졸업하고 대한 전선을 거쳐 신호유화에 입사해 대표이사 전무로 재직했으며, 한국타포린 대표이사를 거쳐 다시 신호유화 대표이사 사장으로 취임했다.

발포스티렌재활용협회는 2004년 사업계획에서 기존의 사업과 함께 <발포 합성수지 포장재 생산자책임 재활용 제도>의 조기정착을 위한 공제조합 업무를 수행하고 농수산물 상자의 재활용 홍보를 위한 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발포스티렌재활용협회는 스티로폼 포장재의 재활용 확대를 위해 1993년 발족한 단체로 금호석유화학, 동부한농화학, 신호유화, LG화학, 제일모직, 한국BASF 등 스티로폼 원료 생산기업 6사와 스티로폼 포장재 가공기업 모임인 한국EPS형물협의회 및 재활용 의무생산자 169개 기업을 회원으로 하고 있다.

협회는 1996년부터 실시된 스티로폼 포장재의 분리수거 이후 다양한 재활용 촉진 활동을 통해 1994년 21%에 머물렀던 스티로폼 포장재의 재활용률을 2003년 58%로 끌어올리는 데 기여했다. <조인경 기자>

<Chemical Journal 2004/02/23>